



전북대 캠퍼스에 불 밝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전북대학교 캠퍼스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을 지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연말연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형 트리를 설치했다.

특히 트리 주변엔 이간 조명 등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민들이 언제든 찾아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됐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연말연시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트리와 포토존을 마련했다”며 “지역민 누구나 전북대 캠퍼스에서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페트를맘 고창지회, 제5회 안전한 사회 스피치 대회

사단법인 페트를맘 고창지회(회장 최상희)는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제5회 안전한 사회 스피치 대회’가 지난 8일 개최됐다.

고창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페트를맘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심덕섭 군수, 김성수도의원, 조민규 군의원, 이석현 경찰서장, 기관사화단장, 초등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20여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각 및 실천들을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교육장장 고수초 김지원, 페트를맘회장장 고창초 양효준, 고창군수상 고수초 주현경, 고창경찰서장 고창초 이선우가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상인들 이웃돕기 동참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협동조합 회원 일동이 지난 8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라면 100박스(150만 원 상당)로 무주군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협동조합 박용식 회장은 “상인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천마·코끼리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헌원하게 되 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이 애용해주시는 반딧불시장을 만들기 위해, 또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기업사·옥천콘크리트, 순창에 장학금 기탁

순창군은 11일 순창기업사(대표 봉성배)가 300만원, 옥천콘크리트(대표 서명옥)가 500만원을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기업사와 옥천콘크리트는 옥천장학회에 2015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재 양성에 꾸준히 기여 해오고 있다.

순창기업사 봉성배 대표는 “이번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옥천콘크리트 서명옥 대표는 “순창군 출신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속 발전 의료원의 모습 보여드릴 것”

오진구 신임 남원의료원장 취임

오진구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이 남원의료원 신임 원장에 임명되어 1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오진구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진구 원장은 1990년 남원의료원에 입사해 공공의료 사업팀장, 관리부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기는 12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오 원장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평가위원, 공립 요양병원 운영평가 조사위원, 공공보건의료발전협의회 회장, 지방의료원 관리부서장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 거점공공병원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취임식에서 오 원장은 경영 안정회를 통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실현을 강조하며,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익 증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규 사업 창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의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 등 단계적 추진전략에 집중할 계획”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소통하는 리더가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남원의료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김관영 도지사, 내년 적십자 특별회비 1호 전달

티엔제이건설, 레드크로스 아너스 전북 20호 가입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흥)는 1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명예회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1호로 전달하며, 2024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서 운영하는 고액기부자를 텁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에 티엔제이건설주식회사 사고태유 회장과 김지혜 사장이 1억원을 기부하며 전북 20호로 기입했다고 전했다.

티엔제이건설주식회사는 1991년 대유전기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티엔제이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연탄·백미 지원, 겨울 아물 나눔, 경로당 TV 설치,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제10회 사랑의 열매 대상 ‘희망장’ 시민참여 분야 수상

제10회 사랑의 열매 대상 시민참여 분야 단체부문에서 ‘희망장’을 군산시가 수상했다.

사랑의열매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문화 확산과 사랑의열매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평소 기업기부, 척화기계,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척화일터 참여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사랑의열매 대상에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김동수 전북시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군산시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 수상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훈훈해 주신 군산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군산나눔종합사회복



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59개소와 저소득가정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군산시에 총 1억650만원을 함께 전달하였다.

한편 시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나눔캠페인’을 진행하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품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대 전종윤 HK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전종윤 HK교수가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로 교육부장관이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종윤 HK교수는 지난 8월 서울 코리아나 호텔 2층 디아이몬드홀에서 ‘탈유교사회와 유교문화와 서양 철학적 재해석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 교수는 탈영토화를 거친 유교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학과 서구의 학문적 전통 및 방법론을 상호 비판하고 상호 참조하는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동시에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의 주요 우수 연구 성과는 △동서양의 인간 이해의 변곡점을 추적하여 유교문화의 탈구축 과정의 연계성을 조명 △일제강점기 4대 빈민 중 하나인 토막민을 문학·역사·철학적 시각에서 분석 △우리는 과거에 의해 영향받는 존재, 즉 전통이 토대된 유교문화에 빛진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 등이다. /정은성 기자



고창군, 2023 안전문화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고창군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안전문화대상은 정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고 우수한 안전문화 활동 및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안전생활실천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비상대비 주민보호 훈련, 기상재난 상황 적극 대응, 지진방재 계획 수립 및 시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사회·자연재난 선제적 대응활동과 물불不分 지역 안전관리원 교육,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무더위쉼터 냉방기 접점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수상 인센티브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 가점을 부여받고,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안전한 고장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 이어져

부인중앙농협 임직원 33명이 무주군에 고향나눔기부금을 전달했다. 11일 무주군수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는 구천동 농협(조합장 김성곤),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와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 관계자 등 20여 명도 자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부인중앙농협 신정식 조합장은 “농협은 창립 이후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무주군을 통해서 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부는 무주구청동농협과 자체결연(2023. 7. 27.)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무주구청동농협 임직원들로 부인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호원대·용산구 상공회의소,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8일 용산구 상공회의소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게 자기 발전은 물론,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 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이뤄지는 학사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음으로써 신·편입학의 과정을 거쳐 4년제 대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 취득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주력 학과인 호원대 경영학과는 미래 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원리 및 관리기법 등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식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에서 미래과학 분야 동량의 꿈을 키운 초·중등 사과과정 학생들이 지난 9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손홍찬 원장은 비롯한 과학영재교육원 관계자들과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수료식에서는 전 과정을 이수한 초등신학과정 53명, 중등신학과정 82명, 종등사과과정 31명 등 모두 166명이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료한 과학영재들은 1년 동안 심화 과정을 통해 STEAM교육, SW융합교육,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을 100시수 이상 교육을 받았다. 전북대 소속 교수들과 박사급 이상 강사진들이 참여하고, 최첨단 교육시설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이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